

국토정중앙의 지오 스토리텔링 개발

김창환* · 정해용**

Development of the Geo-storytelling about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Korea

Chang-hwan Kim* · Hae-yong Jeong**

요약 : 지오 스토리텔링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자원을 양구의 장소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지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토정중앙의 지오 스토리는 3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배꼽나라 긴급회의, 둘째, 관찰의 성지, 셋째, 국토정중앙과 독도, 그리고 금강산 등이다. 이들 스토리 개발은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했기 때문에 안내판이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오 스토리의 창작에 있다. 그리고 개발된 지오 스토리텔링은 지리교육, 영토교육, 통일교육, 향토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국토정중앙, 양구, 지오 스토리텔링, 영토교육, 지리교육

Abstract : Geo-storytelling makes a sto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in the certain region and tells in various formats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new geo-storytelling by combining geographical center of the Korea with Yanggu place. Geostories in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Korea are divided as follow; First, urgent meeting of the navel country, Second, holy ground of the observation, Third, geogrpahical center of the Korea, Dokdo and Mt. Geumgangsan. The significane of this study lies in the creation of the geostory. And this geo-storytelling will be available in various fields such as geography education, territorial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local education, etc.

Key Words : Geographical center of the Korea, Yanggu, Geo-stroytelling, Territorial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 의미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스토리텔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인식되는데, 의사소통의 내용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를 전달하

는 행위에도 주목하는 용어이다(최상희, 2011).

21세기를 일컬어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쾌적한 공간, 즐거운 공간, 유희의 공간 등으로 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공간은 부드럽고, 다양하며,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우성호 · 박석수, 2010).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감성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llskim@kangwon.ac.kr)

** (사)한국지오피아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Geopia Research Institute, wjdgofyd@hanmail.net)

산업은 도시, 건축,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성의 표출 방법을 주로 문화산업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문화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발전에서 문화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돌파구로 까지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기법으로서, 발굴된 스토리가 문화콘텐츠에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각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향유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CT(Culture Technology)이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통해 문화자원 및 관광지 관련 소재를 발굴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창조하고 주제를 부각시켜 지역을 이미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경은, 2009). 하지만, 감성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공간에 대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간을 스토리로 구현할 수 있는 지리적 감성이 필수적이다. 지리적 감성을 구현하는 방법인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성적이면서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이두현, 2014).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너도 나도 장소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장소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장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별로 상징적이고 특징 있는 요소를 만들어 지역의 이미지를 특화시키려고 하나 일부 사업에서 지역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이인선, 2013). 결국 장소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차별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며, 장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성 대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에는 부정적인 장소성도 존재한다. 또한 가시적인 장소자산 위주로 활

용하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정서적·상징적 요소 활용도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 모두 다양하고 지속적인 장소마케팅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었던 장소마케팅에서 벗어나 부정적 장소성의 활용, 그리고 용이하게 활용하기 쉬운 가시적인 장소 자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비가시적인 장소 자산의 구체화도 고려해야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류주현,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정중앙’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강원도 양구군이 실시한 장소마케팅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구군은 2002년 5월, 양구가 국토정중앙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정중앙추진위원회’ 결성과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양구군의 ‘국토정중앙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교사를 대상으로 ‘국토정중앙 양구와 DMZ Geotourism’이라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 결과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구의 지역적 이미지는 ‘군대’, ‘오지’ 등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단편적인 명소화 전략으로 인해 국민적 인지도 상승 정도가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부흥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김창환,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정중앙이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리적 위치자원을 양구라는 장소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지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스토리텔링 연구는 대부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이것을 스토리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엮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의 스토리로 창작한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원에 대한 스토리를 창작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개발된 스토리텔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구군의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도 새로운 테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쟁력 있는 장소 자산과 스토리를 가지게 되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스

토리 교육을 통해 향토애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스토리텔링과 공간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오 스토리텔링

1.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자에 의해 창작되거나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수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인 담화형식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최근, 전문화된 용어로 쓰이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개념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이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말과 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류수열 등(2007)은 스토리텔링을 시간적 질서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나 사건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처음-중간-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처음-중간-끝’의 구조는 정보나 사건이 청자나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염두에 두고 재조직된 결과로 추상적·논리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최혜실 등(2007)은 스토리텔링은 ‘story’, ‘tell’, ‘ing’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이야기와 말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란 인쇄 매체 시대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진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이미 과거 완료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에서의 ‘tell’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 외에 시각은 물론 심지어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까지 포함한다. 특히, 구연자와 청취자가 같은 맥락 속에 포함됨으로써 구연되는 현재 상황이 강조된다. 여기에 ‘ing’는 상황공유,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에 참여하는 현재성과 현장성을 강조된 말로 스토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는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브랜드 가치나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훈철(2004)은 사람들의 연상을 강화시키는 스토리텔링의 핵심 장치가 지각력과 인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공감각적인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감각적 체험과 정서적 경험을 도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단계와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스토리를 통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이며, 후자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그리고 공간 스토리텔링 등 지식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주목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사소통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서 도구란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의사소통의 도구는 통상 매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이두현, 2014).

2. 공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통해 공간 스토리텔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비어있는 곳을 말하지만 최은미(2010)는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공간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이란 자연과 인간 활동이 펼쳐지는 지표인 장소와 비슷한 개념인 셈이다. 따라서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원에 얽힌 이야기들을 말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에 담긴 원형적인 이야기를 사용자와 매체에 따라 수정, 변형하여 감동과 재미를 전달하는 것이 공간 스토리텔링이다.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간 중에서 주제라는 관념적 범위를 가질 때 이를 일컬어 테마 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 의한 테마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주제라는 관념적 범위를 갖는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즐거움과 적절한 체험을 제공하며, 다른 공간과 다른 분위기를 창출하고, 건물, 시설물, 상품 그리고 경관이 선정된 주제에 맞게 조화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집중시키는 테마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된 주제를 적절히 표현하는 소재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일상을 탈피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의는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에 일관성을 부여하면서 작

품의 허구적 세계를 창조하는 서사의 방식과 부합한다. 테마 공간은 자유스러움을 지니며 탈일상의 성격, 무관심성의 요소를 지닌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테마 공간에 존재하는 시설물, 건축물, 경관과 관람객이 그것을 관람하는 행위는 스토리텔링에 있어 '내가 참여하여 만드는 이야기'이다. 기본 자료들이 이미 공간 속에 구축되어 있고 디자이너 혹은 계획가의 의도를 고려하면서 관람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한다. 관람객의 스토리텔링의 행위는 그의 취향이나 그때의 상태에 따라 여러 번 거듭해도 동일하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는 이야기 구조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테마 공간을 재방문하게 하고, 항상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공간 연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초기 연구는 도시 마케팅과 관광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자연스레 장소 마케팅과 연계된다. 김태영 · 조혜경(2008)은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의 체계를 개념화하여 스토리 발굴, 스토리 체험, 스토리 공유 등 세 부분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것은 장소의 매력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스토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방문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장소감을 느끼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개개인의 장소감은 서로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으로 승화하게 된다. 김정하(2009)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이어서 보는 잇기 전략과 상호 작용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의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반정화 · 민현석(2009)은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통해 스토리텔링은 관광객들이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여 체험하는 과정에서 관광지가 생산한 이야기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원리에 따른 바람직한 공간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영순(2010)은 도시마케팅과 관광산업 진흥을 주제로 여가도시를 위한 춘천의 공간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춘천의 관광 동선과 춘천의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연적 여가 공간에서 문화적 여가 공간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우성호 · 박석수(2010)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공공 공간의 디자인 연구에서 이태원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테마 공간을 구성하였다. 최은미(2010)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한 '상상+이야기'의 감성적 공간 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측면에서 공간 스토리텔링을 구현하였다. 이지현(2011)은 서울시 청담 · 압구정 패션 특구 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 장소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용하여 공간 스토리텔링을 구체화 시켰다. 류주현(2013)은 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지역 개발이라는 연구에서 스페인 돈키호테의 길을 사례로 지역 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공간 연구는 지리학을 비롯하여 건축학, 도시학,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간 연구는 도시, 역사, 조정, 건축, 광고, 색채, 경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각 분야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유연성과 탄력성, 보편성과 대중성, 상호 작용성, 비선형성 등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공간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우성호 · 박석수(2010)의 연구에 의하면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정의한다.

첫째, 공간 스토리텔링은 유연적이고 탄력적이다. 계획가나 해설가들의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방법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유연성과 상호 작용에의 기대감 등을 갖게 한다. 따라서 동일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게 된다.

둘째, 공간 스토리텔링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다. 특정한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람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공간 스토리텔링은 상호 작용적이다. 스토리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면 계획가들이나 관람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본래 스토리에 추가하기도 하고 새롭게 변형되기도 한다.

넷째, 공간 스토리텔링은 비선형적이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일정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 및 해설가의 의지에 의해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의 개입에 의해서도 전단계로 돌아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3. 지오 스토리텔링

1990년대 이후 지역 자연자원의 발굴 및 문화, 역사, 전통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가 지오투어리즘이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학문의 영역과 속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Stueve *et al.*(2002)는 지오투어리즘을 ‘지리관광(Geographic Tourism)’으로 해석하면서 탐방지의 지리적 특성인 탐방지 거주자들의 환경, 문화, 심미적인 경관, 웰빙 등을 지속시키는 한편 또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Frey *et al.*(2006; 전영권, 2010b)에서 재인용)은 지오파크 개념에서의 ‘Geological Tourism’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David 등 일부 학자는 지리학과 지질학의 두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전영권, 2010b). ‘가운데’, ‘중앙’, ‘끝 지점’ 등과 같이 위치자원과 관련된 관광 매력물은 새로운 관광 신조어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조어를 명명한다면 특정 지점이나 특정 입지의 위치적 속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point tourism’이나 ‘location tourism’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오정준, 2010). 그러나 특정 장소의 위치적 속성 또한 지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오투어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은 단순히 지형·지질 경관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 내용이 그 지역의 문화, 역사, 고고학적 사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김창환, 2011; 2014; 2016). 다시 말해서 지오투어리즘에서 추구하는 스토리텔링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人文환경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지오투어리즘에서 추구하는 스토리텔링을 특별히 지오 스토리텔링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 구성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땅’과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 즉 특정 공간의 자연 환경과 위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공간 스토리텔링과 지오 스토리텔링의 가

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창환(2008; 2013)은 공간 구성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땅’과 ‘위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리와 관련해서는 문화지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전영권, 2008; 2009; 2010a; 2010b)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지형이나 경관에 대한 이해(권동희, 2012; 기근도, 2013) 혹은 장소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전명숙·김근중, 2011; 옥한석, 2012; 이승주 등, 2012; 류주현, 2013)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형경관 및 경치가 수려할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전설과 기록 및 선인들의 유람 기행문이나 시문자료가 풍부한 용유동 일대의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기근도, 2013). 이 또한 문화지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창환(2011)의 지오사이트의 스토리텔링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오 스토리텔링 연구는 대부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이것을 스토리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엮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역의 스토리로 창작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지오 스토리텔링의 구성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향토 교육과 이를 통한 향토애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III. 국토정중앙의 지오 스토리텔링

1. 배곶나라 양무와 정중앙

1) 배곶나라 긴급회의

어느 파사로운 오후 한반도 섬에서는 왕버들인 ‘양(楊)’이가 주재하는 배곶들의 배곶나라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어 많은 배곶들이 섬으로 모였다. 이제부터라도 누구의 배곶이 더 가운데에 있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들을 통일시키고자 더 늦지 않게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안건이었다. 마라도에서 온 ‘남미(南)’ 배곶이 헉헉 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난 남쪽 아래에서 땡 빛 아래 긴 걸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보다 더 멀면 다음 회의는 우리 마라도에서 할 거야” 하며 배곶 사이로 나오는 땀을 열심히 닦

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기(北)’ 배꼽이 거들면서 말한다.

“난 북쪽에서 한파를 뚫고 여기까지 왔어. 더 내려가면 더위 때문에 못 갈 거야. 동무 배꼽들~ 내 편의 좀 봐줘~”라며 두꺼운 가죽으로 배꼽 가리기가 한창이다. 그러자 ‘동이(東)’ 배꼽이 거들며, 한마디 한다.

“여기 모인 이유가 단지 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잘 알거야. 우린 빨리 신성한 배꼽 성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을 내야 하네. 좀 더 좋은 의견을 내놓자는 것이 내 생각일세.”

동이 배꼽의 발언에 앞서 말한 배꼽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꼽들도 웅얼하였다. 오늘의 주제를 맡은 ‘양이’ 배꼽이 회의 안전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자 나섰다.

“오늘 안전인 배꼽 성지 구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인데. 대대로 우리의 영토가 변화하면서, 이제 자주성과 통일이 확립된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성지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후손 배꼽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기존에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좋은 생각이 있는 배꼽은 나와서 어떤 것이 좋은지 말하면 될 것인데.”

“최종 결정 사항을 위한 의견으로 우선, 성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성지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육지만 할 것인가? 아님 섬을 포함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동이’ 배꼽과 ‘나미’ 배꼽 및 많은 섬 중앙 배꼽들과, ‘육동이(陸東), 육서이(陸西), 육나미(陸南), 육부기(陸北), 형제 배꼽들과 의견을 조율해 말해주게.”

성지 구성에 대한 조정 의견이 제시되자, 주변에서의 토론이 한창 진행되더니 각 각(道)의 대표 배꼽 중 ‘아리수’ 배꼽이 수도 대표로 이야기를 꺼낸다.

“난 우리 배꼽 성지가 음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전 시대의 길지와 현재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준 역량을 바탕으로 성지를 조성했으면 하네. 방법은 우리 지리 배꼽인 중 대표 격인 ‘처기(尺)’ 배꼽이 제시해 주리라 믿네.”

다른 배꼽들이 수긍하자 오늘의 주재자 ‘양이’ 배꼽은 “그럼 처기 배꼽에게 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다음 의견인 섬과 육지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게.”

“육(陸) 형제 배꼽 중 첫째인 나 육동이 배꼽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겠소. 우리는 배꼽의 상징은 조화요, 어울

림이요,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들 알 것이지요. 우리는 섬 배꼽들을 우리와 배꼽을 맞댄 형제로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오. 이에 섬 배꼽 형제들과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의견이오.”

“나 ‘나미’ 배꼽과 ‘서이’배꼽, ‘동이’ 배꼽과 다른 많은 섬 배꼽들도 같이 의견이오. 좋은 의견을 준 ‘육’ 배꼽들 모두에게 감사를 보내오.”

‘나미’ 배꼽의 말이 끝나자 경내에서는 많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제 통일된 의견들 수렴한 결과를 발표하겠소.

섬을 포함하여 조성된 우리의 배꼽 성지는 처기 배꼽이 측정한 것으로, 모두가 있는 이곳이 성지로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바요. 나미 배꼽과 부기 배꼽은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될 듯하오, 허허허 이상 모든 회의를 마치겠소.”

이렇게 많은 배꼽들이 긴급하게 모여 열린 회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제 배꼽들의 바람이 이곳 배꼽 성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 되고 조화된 모든 배꼽들이 만든 ‘배꼽 성지’가 더욱 배꼽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이다.

2) 양구와 배꼽의 수상한(?) 관계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 머리를 가우뚱거리는 민국이는 대한이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대한아 혹시 양구 가 본적 있냐?”,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내일부터 배꼽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축제이름이 배꼽축제라는데, 아는 게 있을까 해서”

“배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축제가 있다고? 그럴 리가?”

“여기 봐~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올해로 9회째라고 하던데”

“보통 축제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명소를 가지고 명칭 짓지 않냐? 송어 축제, 한우 축제. 말하니 다 먹을 거네.”

궁금증을 해소 못하면 자신이 시달릴 것으로 생각한 대한이는 민국에게 양구에 가보자고 제안하기에 이른다.

“민국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양구 배꼽 축제 가볼까?, 궁금증은 가서 해결하는 걸로... 하하하”

“그래. 이번 기회에 축제이름이 왜 배꼽인지 알아봐야겠어.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내가 선생님께 가볼 테니. 좀 있다 봐~”

한참 사진을 보시는 선생님에게 다가간 민국이는 사진을 보며 사진에 대해 물어본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꼬불꼬불한 길과 강이 어우러진 광경,,, 한참 다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민국이 왔구나? 무슨 일이지?”

“네.. 다름이 아니라 양구에서 배꼽축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축제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선생님께서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가자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지금 사진 정리하다가 예전에 양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나요? 어떻게 하죠?”

“하하하 민국아 이 사진은 15년도 넘는 사진이야.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금방 갈 수 있어. 어제 조사 차 양구에 다녀왔는데 아직 조사가 남아서 그런데 같이 가볼까? 진짜로 길이 꼬불한지, 배꼽이라는 이름으로 왜 불리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사하시는 내용이 뭐죠?”

“지금 배꼽축제 중이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거든... 방금 전에 마무리 했는데 같이 볼래?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국이도 사전에 조금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림 한 장을 민국이에게 보여주며, 질문을 해보기로 한다.

“민국이는 처음 양구와 배꼽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지?”

“저는 양구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맑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살기 좋은 곳... 천문대가 있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청정 이미지가 가장 많이 생각나네요.”

“민국이가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네. 그림에서 한 아이가 떠올리는 장면은 어제 관광객들이 양구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에 대해 물어 본 것 중 가장 많은 말을 정리한 건데, 배꼽 축제다 보니 배꼽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중앙, 중심, 기, 지리적 위치, 청춘 등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생각보다 양구에 대해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더군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준다.

“이 그림은 국토정중앙에 대한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개념을 글자 혹은 그림 등으로 나타난 노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핵심어 위주로 주 가지와 세부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국토정중앙이 주제인가 하는 건데, 그건 대한이와 민국이가 함께 양구로 간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자.”

3) 국토정중앙과 스무고개

민국이의 궁금증과 대한이의 제안으로 배꼽여행이 시작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양구 국토정중앙 입구에 도착한 아이들. 앞장서던 민국이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

“선생님! 여기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나 봐요.” “민국아 그건 신분증 아니니? 한번 보자꾸나. 흠... 양구에 사시는 정중앙씨의 주민등록증이구나. 우리 조금 있다 돌아가는 길에 경찰서에 맡기도록 하자.” “네 선생님. 그런데 국토정중앙에 외지 사람들만 올 줄 알았더니, 양구 사람들도 많이들 놀러 오시나 봐요~” “그러게, 동네 사람들도 즐겨 찾는 걸 보니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만 같은데! 어서 올라가 보자!” “대한아, 벌써부터 달려 오르면 힘이 빠지고 말거야. 우리 이곳저곳 둘러보며 천천히 올라가 보자.”

선생님 말씀에 대한이가 발을 맞추어 걷기 시작한다. “애들아, 우리 방금 신분증을 주웠잖니?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물건이 무엇일 때 가장 당혹스러울까?” “음. 저는 돈이요! 돈 잃어버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선생님의 질문에 민국이가 대답했다.

“민국아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너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학교부터 집까지 살살이 찾아보느라 진땀 흘렸잖아~” “아 맞다! 스마트폰 잃어버리는 게 최악의 상황일 것 같네요. 사실 가족들 번호도 외우지 않고 있어서 연락도 못할 거예요. 거기다 대한이를 놀릴 만한 사진이 가득한 걸요~” “내가 스마트폰 찾는 걸 도와주질 말걸 그랬어!” “얼마나 재밌는 사진들이 길래 대한이가 발끈하려나~ 선생님도 궁금한걸.”

국토정중앙 입구에서 조금 오르니 안내판(1)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대한이가 말한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빈칸문제가 있어요.” “너희들 답이 떠오르니?”

선생님의 질문에 민국이와 대한이가 대답한다.

“저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힌트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볼까요?”

길을 따라 조금 더 오르니 힌트가 있는 안내판(2)이 보인다. 힌트를 본 민국이가 확신이 선 목소리로 말한다.

“이정도 힌트라면 답을 확실하게 알겠네요! 저희 지난 번 국어 시간에 육하원칙을 따라 기사를 써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어디’이죠?”

대한이도 민국이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대한아, 민국아. 그럼 이제 답을 보러 올라가볼까?”
(표 1의 안내판 3) “대한이와 민국이가 답을 맞췄구나!”

답을 맞췄다는 기쁨도 잠시 민국이가 궁금증이 생긴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나 위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민국이의 궁금증을 풀어줘야겠구나. 잠깐 여기 앉아보렴.”

아이들이 옆에 놓인 벤치에 앉자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한다.

“핸드폰 한번 꺼내보겠니? 그리고 지도 앱을 켜보렴.”

대한이와 민국이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펼쳐본다.

“지도 앱 위쪽에 ‘위치’라는 단어가 있지?” “네 선생님! 제 것에는 ‘현 위치’라고 적혀 있고, 대한이 화면에는 ‘내 위치’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 현 위치와 내 위치 모두 내가 있는 곳 주변을 알려주기 위한 편리한 기능이야.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 지도 앱에서 현 위치나 내 위치

를 누르면 내가 있는 곳이 표시되잖니? 이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위치’야.”

선생님의 설명에 민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하! 그럼 지금 저와 선생님 그리고 대한이는 양구라는 곳에 있는 것이네요.” “맞아.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는 위치정보가 있어. 그런데 위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 다음 안내판에 숫자로 나타내는 위치가 소개되어 있으니깐 다시 걸어볼까?”

대한이와 민국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네 번째 안내판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우리 집 주소와 같은 것이지. 그런데 집 주소와 다른 점은 이 숫자가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도 변해. 참 신기하지?”

민국이가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희가 한발자국 움직이면 수리적 위치가 변하는 것 인가요?” “민국이가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위치를 수리적 위치인 경도와 위도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경위도 좌표야. 애들이 그런데 경위도좌표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양구에 도착한 것 알고 있지?” “경위도 좌표가 저희를 이곳에 데려다주었다고요? 저희는 선생님 차를 타고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선생님 차에 있는 어떤 물건 덕분이지. 선생님이 차에 타자마자 무얼 했는지

표 1. 국토정중앙 안내판의 내용 (1)

구분	내용
안내판 1	스마트폰으로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상해봅시다. ① 하룻길 또는 퇴근길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여보세요, 가족: □□□? ②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여보세요, 친구: □□□? 언제와? 빈칸에 들어 갈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안내판 2	갑작스러운 문제에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하원칙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누가, 2. 언제, 3. □□□, 4. 무엇을, 5. 어떻게, 6. 왜
안내판 3	정답 “ 어디(서) ‘어디’란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는 일상에서 밀접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4	숫자로 나타내는 위치를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죠.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극과 북극 방향으로 90°씩, 경도는 영국 런던의 구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180°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억나니?” “민국아. 선생님이 차에 타시자마자 안전벨트를 하시고, 음... 뭘 하셨지?” “대한아 생각났다! 내비게이션에 국토정중앙이라고 검색하셨잖아~” “우와! 맞아! 선생님 혹시 답이 내비게이션인가요?”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말씀하신다.

“정답! 내비게이션이 정답이야. 내비게이션은 수리적 위치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차에 탄 이후에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위도 좌표를 GPS를 통해 꾸준히 알려주었거든. 그 덕분에 선생님이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양구에 온 것이지.” “민국아 위치는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다 이것 덕분이구나.” “애들이 아까 안내판에 쓰여 있던 것처럼 위치는 우리 일상과 참 가깝지?”

대한이와 민국이가 동시에 대답한다.

“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위치의 종류는 다양해. 위치에 대한 나머지가 이야기는 선생님이 지리 시간에 알려 주마.” “선생님 지리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어느새 국토정중앙에 도착하였다. 휘모리탑 앞에 선생님이 대한이와 민국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애들이 너희 정동진이라는 곳 아니?”

대한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준다.

“쨌! 여기가 정동진 맞죠? 1월 1일에 가족들이랑 해돋이 보러 다녀왔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추웠지만 일출 하나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큰 모래시계도 있고,” “대한이가 정동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그럼, 그 바닷가 동네 이름이 정동진이 된 이유를 알고 있니?”

“당연하죠, 선생님!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 맞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대한아 그런데 왜 하필 광화문이 기준이야?” “선생님 민국이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요... 대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 정동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시기는 조선시대야. 우리 선조들은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되었던 한양이 조선 땅의 중심이라 생각했지. 그중에서도 임금이 계시는 경복궁의 광화문을 조선의 중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광화문을 기준으로 삼은 거야.” “선생님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렇지 민국아?” “대한이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도 서울을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아직까지 서울이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토를 고려한 지리적 중앙을 의미하지는 않아.”

민국이가 대답한다.

“국토를 고려한 지리적 중앙이요? 그건 저희가 있는 이곳 국토정중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국이 말이 맞아. 그렇다면 양구가 어떻게 국토정중앙이 되었는지 알아볼까? 우선 국토의 범위를 알아야 해.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

선생님께서 종이를 꺼내시고는 펜을 들고 한반도와 주요 섬들을 그린다.

“여기 한반도와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가 있지? 대한이와 민국이가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동, 서, 남, 북쪽의 끝을 빨강색 점으로 표시해볼까?”

대한이와 민국이가 종이 위에 빨강 점을 찍었다.

“너희들이 찍은 점들을 4극이라고 해. 동쪽 끝을 극동, 서쪽 끝을 극서, 남쪽 끝을 극남, 북쪽 끝을 극북이지.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니?”

자신 넘치는 표정으로 민국이가 대답한다.

“동쪽 끝은 우리 땅! 독도이고, 남쪽 끝은 마라도 아닌가요? 북쪽과 서쪽 끝은... 음... 대한아 너는 혹시 알고 있어?” “나도 나머지 두 곳은 잘 모르겠어.” “대한이와 민국이가 4극 중 두 곳이나 알고 있네! 그것으로도 충분해. 극서와 극북은 오늘 알아 가면 되겠네. 극서는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유원진이라는 것 기억하렴.” “그럼, 이제 국토정중앙 찾기를 시작해볼까? 대한이와 민국이가 표시한 4극을 지나는 선을 그려보자. 극서를 지나는 1번 선, 극동을 지나는 2번 선, 극북을 지나는 3번선, 극남을 지나는 4번선.”

선생님의 그림을 본 대한이가 말한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경선과 위선을 그리신 거죠?” “대한이가 경위도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구나. 여기에다 경선과 위선의 중앙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이것이 5번 선인 우리나라의 중앙경선, 6번 선은 우리나라의 중앙위선이 돼. 그러면 두 선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 바로 이곳이 국토정중앙이야!” “우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꼬르륵. 민국이 배에서 소리가 난다.

“예구. 소리가 너무 요란하네요.~ 선생님~ 국토정중앙까지 오느라 좀 걸었더니 배가 고파요.” “벌써 점심시간 때가 되었구나. 우리 조금 있다 배꼽축제에 가서 양

구 먹거리들을 잔뜩 맛보자. 조금만 참으렴, 민국아.”
“네 선생님!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흠... 이번에는 선생님이 배꼽이야기를 해줄까?”

선생님의 말에 이어 대한이가 대답한다.

“배꼽이야기요? 누구에게나 있는 배꼽인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물론이지. 우리가 세상 빛을 보기 전 태어났던 시절에 우리는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어. 탯줄은 산소와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주었고 덕분에 아늑한 어머니 배 속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났지. 배꼽은 탯줄의 흔적이고.” “어머니 배속에서는 이렇게 자그마한 배꼽이 참 중요했네요. 지금은 동그랗게 자리만 남아있고요.” “응. 하지만 지금도 배꼽은 매우 중요해. 숨쉬기 그러니까 호흡 방법 중에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있어. 도교에서는 삼단전이라 해서 단전을 뇌의 상단전, 심장의 중단전, 배꼽 아래의 하단전으로 구분하고 있지. 이렇게 세 곳의 단전을 통해 호흡을 하는 게 단전호흡인데, 이 호흡법은 몸의 기운을 순화시켜 주어서 건강을 유지해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대한이가 대답한다.

“우와~ 호흡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 “그렇지? 하지만 단전호흡이 쉽지는 않다고 해. 수련이 필요하다고들 하더구나. 삼단전 중에서도 배꼽 아래 하단전에 힘을 주면 건강과 함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긴장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는 배꼽 아래에 힘을 꼭 주렴.” “대한아. 우리 지난번에 본 무협영화 기억나?” “응. 물론이지. 사람들이 무기 하나 없이도 굉장한 실력으로 싸웠잖아. 나도 그렇게 힘이 세지고 싶어~” “선생님, 그때 영화를 보니 수련 하는 사람들이 배꼽 쪽에 기를 모으더라고요. 그게 단전인가요?” “민국이 참 예리하네. 그곳이 단전이야. 배꼽은 몸의 기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지. 우리 몸에서 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배꼽인데, 넓디넓은 우리 땅의 배꼽인 국토정중앙은 얼마나 많은 기를 담아두고 있겠니? 기가 가득한 국토정중앙 양구에 소원을 담아서 권력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한번 읽어보겠니?”

이성계, 새 나라 건설의 염원을 양구에 담다

‘군사를 돌려라! 우리는 개정으로 돌아간다!’ 요동정벌을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외쳤습니다. 5만 대군을 이끌고 개정에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 왕권을 쥐락펴락하며 어느새 실세가 되었죠. 요동정벌의 명을 거역하고 회군

까지 결정한 이성계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한 고려 제일의 ‘신하’가 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배 불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권문세족의 행패에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이성계는 백성의 마음을 보듬어 민심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민심을 근간으로 하여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려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여 왕위에 오르고자 한 것이 큰 목표였던 것이죠.

이성계는 이렇게나 크나큰 자신의 염원을 양구에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국 팔도 그 어느 곳 보다 양구의 땅이 자신의 염원을 살피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양구 방산자기장에게 백자를 빚어 달라 하였고 그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담아 금강산 월출봉에 봉안하였습니다. 백자 바깥에는 ‘미륵보살이 내려와 중생을 구제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새겨놓았죠. 자신이 미륵보살이 되어 혼란한 정세 속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꿈을 품은 양구, 우리는 어떤 소원을 담아볼까요?

“선생님!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양구 도자기에 소원을 불어 넣었다고요? 민국아 우리도 양구에서 어서 소원을 빌어보자!” “잠깐만 대한아. 여기 소원을 비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 이 방법을 따라야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기를 많이 받을 수 있대!” “대체 그 방법이 뭐야? 빨리 소원 빌고 싶어!” “하하하. 너희들이 이성계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들떠있구나. 자, 여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그 방법을 알려줘. 선생님도 배꼽축제 설문 조사하러 왔을 때 설명을 따라 소원을 벌써 빌었어.”

대한이와 민국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검색하니 국토정중앙에서 소원 비는 법이 시작된다.

국토정중앙에서 소원 비는 법

양구의 기운을 가득히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두 번째, 국토정중앙 탑돌이를 통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으고
세 번째, 옥에 손을 대어 기운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라)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 할 때도 있고 욕!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과 어깨는 딱딱한 돌 마냥 뭉쳐있기도 하구요. 여기 속성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스트레스와의 전투를 위한 준비운동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는 몸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목과 어깨의 뭉친 근육이 그것입니다. 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며 근육을 풀어주세요. 더불어 목도 가다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구요?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운동입니다.

② 나의 스트레스 '적' 내쫓기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와의 다툼, 직장 상사의 잔소리. 공부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는 '소리 지르기가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부위에 자극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소리 지르기가 심리치유요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소리 지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고성방가로 신고 당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곳 국토정중앙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들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무언가 있다면 산을 향해 소리치며 모든 걸 토해내세요. 뒤따라오는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까 망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놓인 고향향아리 속에 소리를 외쳐보세요. 이 향아리는 큰 소리를 작게 만들어 주는 특수한 향아리입니다.

③ 스트레스와의 전투 후, 숲에서의 힐링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날리는 법 중 하나가 자연음을 듣는 것입니다. 일상을 뒤덮은 기계음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의 치료법이 되기도 하죠.

국토정중앙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리나요? 나무와 바람이 만들어 내는 숲의 소리, 새의 지저귀, 오늘의 날씨가 '바라만' 빗소리도 들리겠군요.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자연의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숲의 소리는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새의 지저귀는 집중력을 높여 준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난 오늘 혹시나 비가 내렸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들은 빗소리가 오늘 밤 우리에게 꿀잠을 가져다줄테니까요.

국토정중앙 숲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공기를 느껴봅시다. 명상과 함께 하는 심호흡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휴식 반응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정한 양구의 숲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은 복식호흡입니다. 숲에서의 호흡은 스트레스를 다스리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유지해줍니다. 숨을 크게 들이 마실 때 느껴지는 향긋한 냄새가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테르펜이라는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만든 화학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 온 피톤치드는 몸속의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숲에서 나오는 약, 피톤치드를 맘껏 누리보세요!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으자>

국토정중앙에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으려면 탑 주변을 돌아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오른쪽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 잊지 마세요. 탑 주변을 도는 것을 탑돌이라 하는데,

탑돌이는 불교 의식에서 시작되어 민속놀이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모은 기(氣)를 흡수하자>

거꾸로 놓인 꼬깔콘 모양의 휘모리탑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 놓인 옥이 보이시나요? 옥 위에 오른손을 놓고 마음 속으로 셋까지 세어 보세요. 차가운 성질의 옥이 우리 몸 속의 뜨거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몸에 좋은 원적외선과 함께 세상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줄 것입니다.

2 관찰의 성지를 거닐다

“너희들 혹시 아까 양구로 들어오는 길에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문구 본적 있지?” “네. 양구 들어오는 마지막 터널 들어가기 전에 큰 간판으로 된 걸 본 거 같아요.” “민국이는 기억력이 좋구나. 그럼 왜 10년이 젊어질까?” “선생님, 제 생각으로는 청춘양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하하 그것도 맞은 되거나. 그럼 양구 앞에 청춘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그건 아마 양구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건강과 청정 같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싶은 바람에서 넣지 않았을까요?” “10년과 청춘, 건강과 청정... 이런 말로 양구라는 도시를 알리고 싶은 바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것은 너희들이 정중앙에 소원비는 법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선 휘모리탑부터 설명하자면, 생김새와 같이 무엇을 빨아들일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길을 의미하는 거란다. 그리고 땅 속의 기운이 땅의 심에서 돌면서 올라오는 땅의 기운이 뻗치는 길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단다. 즉,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한 곳으로 통한다는 것인데, 그 중앙에 위치하여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국토정중앙에 위치한 휘모리탑의 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옥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들의 몸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란다. 그러니 좋은 하늘의 기와 땅의 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좀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매일 와서 이렇게 기를 받으면 엄청 건강해 질 수 있겠네요.” “물론.. 그럼 대한이는 엄청 건강해 질거야.” “매일 오고 싶은데 우리 집하고 멀어서 오기는 그렇네요. 하하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단다. 그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우선 하늘 천(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늘 천자에는 하나 일(一)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사람 인(人)자가 있지? 사람 위의 일(一)

자는 사람의 머리에 닿아 있으면서도 높이 있고, 또 하나의 일(一)자는 사람의 가운데에 걸쳐 있어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듯 하지만 아주 낮지는 않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어.” “대한아 우리들의 머리에 닿아 있는 것이 뭐지?” “머리 위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요?” “그럼 다 같이 위를 한번 올려다볼까? 무엇이 보이지?” “당연히 하늘이 보이지요” “그럼 너희들 머리에 있는 것은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자꾸나. 무엇이 보이지?” “이번에는 땅이라고 할 거 같은데요. 하하” “그렇지. 하늘은 올려다 봐야 볼 수 있고, 땅은 아래를 살피야 볼 수 있거든, 이러한 내용은 옛 성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싶어하고 실천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단다. 여기서 잠깐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볼까?” “네~ 재미있는 얘기 기대할게요.”

1) 하늘(天)을 보고(觀), 땅(地)을 살피다(察)

하늘 이야기에 정중앙의 이치를 담다

“무릇 하늘(天)이란 무엇이고, 땅(地)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은 왜 그렇게 높게 있고, 땅은 왜 낮게 내려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人)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어린 제자의 질문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의 스승이 답하기를 “옛 고전에서 이르기를 무릇 도에 정통한 사람은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며, 가운데로는 인사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다(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라고 하였다.”

“무릇 하늘과 땅이 있음을 알고, 그 위치를 아는 것과, 그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또한 아는 것은 도에 정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치를 안다는 것은 기에 근거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천기의 위치를 연구한 것이 천문이고, 지기의 위치를 연구한 것이 지리이며, 이를 통해 인체의 기 변화에 통달하는 것이 인사라고 한다.”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천도, 지도, 인도를 앎으로서 얻어질 수 있고, 천문과 지리, 인사를 앎으로서 얻어질 수 있으니, 어느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떻게 수련해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늘을 헤아려 보고(觀於天文), 땅을 잘 살피야만(察於地理) 천문과 지리에 대해 통달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관찰(觀察)에서 비롯되니 바람이 스쳐지나가거나, 땅이 내는 소리 등 사소한 것들도 소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관찰(觀察)을 통해 하늘의 기운인 천기와 땅의 기운이 지기를 얻고, 인사를 알 수 있을 때 능히 도에 통달할 수 있을 것이

니 걱정 말고 수행하면 되느니라”

이에 어린 제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여 현명한 답을 얻어 관찰(觀察)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여 후에 한 나라의 훌륭한 승상이 되었고 후손들이 관찰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스승의 도를 다하여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출처 : 신원봉 역, 2011(황제내경, 주역 계사편).

“대한이하고 민국이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 관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 이해해 주렴. 여기 정중앙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찰의 중요성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관찰이 정중앙을 이해하는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이지. 하지만 이 곳 양구에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천문대와 땅을 살필 수 있는 지리박물관이 있고, 그 중심에 국토정중앙이 있으니 보다 쉽게 관찰을 배울 수 있겠지?” “네 그렇네요. 혹시 관찰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은 얘기가 있나요?” “물론이지. 그럼 관찰을 통해 성공을 거두거나 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이야기를 알아볼까?”

“네~ 이야기 속으로 고고”

살수대첩의 승리의 원동력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 기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고 있도다

戰勝功既高(전승공기고) - 전쟁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음에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 만족할 줄 알고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도다

우리 역사상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전해오는 살수대첩 중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치르기 전에 수나라의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 속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 등을 살펴보면 하늘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기상조건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땅의 이를 통달하기 위한 기묘한 계산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군사지리적인 사고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는 이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더위와 잦은 호우로 수나라 군대는 많이 지쳐있었고 이러한 실정에 무작정 수나라가 퇴각하다가 살수(청천강)에서 배수의 진처럼 퇴각로가 잠시 끊기게 되자 고구려군이

수나라의 후미를 공격하여 살수에서 궤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을지문덕 장군의 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임하였다면 고구려는 전투에서 쉽게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신(臣)에게는 배 13척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 주역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지요, 살기를 작정하고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 이니라!

1597년 9월 15일 이순신은 대규모의 왜군 함대가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벽파진에 있던 조선 수군 전 함대를 해남 땅 전라우수영으로 모두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순신은 대규모의 왜군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급보를 받았고 이순신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명량해협을 선택했습니다. 명량은 해남과 진도사이의 좁은 물길을 뜻하는 말로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길이 1.5km, 폭이 좁은 곳은 500m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해전 당일 13척의 판옥선이 울돌목의 격류위에 늘어섰고, 이때 조류를 타고 울돌목으로 접근하는 왜군의 함대는 얼핏 봐도 100여척이 넘어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지금의 진도대교 부근에서 일자진을 형성한 채 적을 기다리고 있었고 목포 쪽으로 흐르는 밀물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의 일자진을 점점 뒤로 밀려나게 했습니다.

왜군의 적선이 명량해협으로 들어오자 조선 수군은 화포를 사용해 일본군에 대한 사격을 하였고, 이 시점에서 목포 쪽으로 흐르던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조수가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류에 맞선 일본의 수군은 진격속도가 늦어지고 대열이 흐트러지자 조선의 판옥선들이 일자진을 만들어 일본수군에 포격을 가했으며,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수군은 조수의 급류에 휩쓸려 서로 충돌하고, 조선의 포격에 맞아 선박 31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퇴각하였습니다.

실로 대단한 승리를 만든 전투였습니다. 적은 함선 수로 많은 수의 왜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밀물이었던 조수가 썰물로 바뀔 때를 알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고, 울돌목이라는 지형적으로 좁은 물길과 암초가 많고 해저지형으로 인해 물살이 빠른 곳을 전투 장소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순신의 사전 치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觀察)로 조선 수군은 왜군을 명량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새 최후를 택한 신립과 배수진이 된 탄금대

“왜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빠른 기병이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싸우면 빠른 기동력을 가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오. 조령 같은 산속에서는 기병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활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요. 재장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1592년 4월 왜군 적장 고니시가 이끄는 1만 8천여 명을 맞이하여 최후의 결전을 위해 신립은 부하 장수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립 장군의 의견에 대해 그의 종사관인 김

여울은 “조령은 천혜의 요새로 매복했다가 적이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면 적을 단번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령에서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우린 군은 왜군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어 자칫하면 제대로 된 전투도 못하고 전멸당할 수 있다고 보오. 이 시점에서 모든 군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겨야 하고, 집결된 힘이야말로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사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보오. 그러니 왜군을 맞이하여 싸울 수 있는 곳을 배후 기지로 하고 넓은 벌판을 활용하여 적과 싸울 것이요.”

이러한 신립의 주장대로 조선 군 8,000여명은 탄금대를 배수진으로 하여 고니시의 왜군 1만 8,700여명에 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퇴로가 없는 작전은 전멸을 예고하였고, 배수진을 쳐 병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도록 하겠다는 신립의 생각은 방법에 나오는 좋은 계책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특히나 4월의 날씨는 나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은 개활지를 전개로 한 전투에 있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배수진은 오히려 조선군의 뒷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고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다.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는 개활지와 배수진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전투였음에도 탄금대를 최후의 결전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 첫 번째 패인이고 기상조건이 왜군에게 유리한 맑은 날씨에 전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아마 비나 안개로 인한 자연조건으로 왜군의 기동력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왜군의 조종 활용이 떨어져 전투에서 승리하였을지도 모르며, 천혜의 요새인 조령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을 경우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연의 요새 관미성을 품다!!

389년 가을 9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남쪽지방을 약탈했고, 그 이듬해인 390년 백제장군 진가모가 고구려의 도읍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남녀 200여명을 사로잡아 돌아가는 등 백제의 약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를 위해 백제군의 북방 전진기지인 관미성을 함락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의 고구려왕은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본 적이 있는, 우리가 고구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 즉 광개토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약탈을 막고 고구려민의 보호를 위해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 바로 관미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392년 7월에 남진하여 백제의 10개 성을 함락시키고, 그 해 9월 거란에 대한 정벌을 완료한 후 관미성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관미성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서해안 방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를 관측할 수 있는 당시 한강과 임진강의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10월에 접어들어 광개토대왕은 함대를 이끌고 남진하여 교동도를 지나 지금의 강화도 북안으로 접근했고 밀물 시간을

기다렸다가 밀물이 오자 관미성을 향해 쳐들어가 7개부대로 나뉘어 관미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륙하여 육지 쪽에 있는 성문을 공격한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습니다. 이후 20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나 결국 관미성을 함락하여 고구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미성 전투를 임했던 광개토대왕은 사전에 관미성의 지형적 조건을 세심하게 파악하였고, 당시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인 바닷물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이자 중요한 거점인 관미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나폴레옹의 참배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러시아군은 모두 합해 22만밖에 되지 않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군은 지도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던 것으로 유명했지만 러시아의 영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확한 지도가 없었고 러시아를 통과하는 도로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전략 수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부분은 한대 - 툰드라 지대로 여름에는 녹아 늪지대처럼 변하고, 겨울에는 얼어 단단한 땅이 되기도 한 탓에 여름에 출정한 나폴레옹은 이 지대를 지나게 되어 군대의 진군 속도가 무더지게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교육지책으로 초토화 작전을 시행하였고, 나폴레옹 군대가 기식할 곳을 미리 다 불에 태워 버린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는 이미 모스크바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가 모스크바에서 퇴각할 무렵의 최저기온이 10월 24일에 -17.7도였고, 11월9일 -22.8도, 점점 다가오는 겨울은 나폴레옹의 후퇴속도보다 빨랐으며 나폴레옹이 현재 벨라루스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12월 1일의 최저기온이 -31.1도였고,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했던 12월 6일에는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은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군의 습격이 개시되었고 이미 추위로 사기가 저하된 프랑스군은 러시아 군에게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은 철저한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러시아의 지도와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러시아의 겨울이 여름에 출정해서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나폴레옹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결국 러시아 정복에서 전체 병력 중 겨우 0.3% 만 살아 돌아 온 세계전투 역사 상 보기 드문 대참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반기성, 2010; 2012; 이상기 역, 2004;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일부 수정.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비록 천문과 지리를 잘 활용 못한 사례도 있지만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 관찰이 그렇게 중요한 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국이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다행이네. 관찰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살핌으로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장소이자 하늘과 땅의 기를 충분히 받고, 더욱 건강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 국토정중앙이고, 정중앙을 중심으로 천문대와 지리박물관이 있으므로 해서 이곳을 ‘한국 관찰(觀察)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와- 이곳이 바로 ‘양구 국토정중앙 관찰의 성지’였군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 배울 것들이 많은데, 이제 내려가 볼까?”

대한이와 민국이는 선생님과 함께 휘도리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내려가기로 한다.

2) 여러 지역의 위치 자원과 국토정중앙

“국토정중앙에서 기를 넘치게 받았는지 힘이 막 솟아 나는데! 저 아래까지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대한아 조심해!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니까 이것도 못보고 지나치잖니.”

선생님 말씀에 대한이가 다시 올라온다.

“엇! 선생님, 독도네요?” “그렇지? 국토정중앙에서 내려가는 길에는 이렇게 국내외에 있는 지리적 위치 자원과 다른 나라의 정중앙이 소개되어 있어.”(표 2의 안내판 5)

꼭 한번쯤은 독도를 가겠다고 다짐한 민국이가 말한다. “선생님 독도 가보셨어요?” “응. 올릉도 여행하면서 독도도 들어가 보았지.” “독도 들어가는 게 쉽지 않는데, 선생님은 행운이 많은 분이세요.” “민국아, 선생님도 겨우겨우 독도 땅을 밟아 봤어~ 올릉도를 세 번 다녀왔는데, 그게 다 독도를 계속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번 가본 거야. 세 번째가 되어서야 독도가 선생님을 반겨주더라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한이가 궁금증이 생겨 물어본다.

“독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 독도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이다 보니 하루 중에도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파도가 세서 배를 섬에 대기가 쉽지 않거든.”

몇 걸음 내려가니 또 다른 안내판 6이 있다.

“방금 독도에 이어 이번에는 남쪽 끝인 마라도가 있어요, 선생님.” “사진 속의 기념비에 무엇이라 적혀있는지 보이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민국이가 말한다.

“음... 대한민국 최남단? 맞나요?” “맞아. 민국아. 이런

표 2. 국토정중앙 안내판의 내용 (2)

구분	내용
안내판 5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으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독도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는 국토 최동단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안내판 6	우리나라 남쪽 끝, 마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속하는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입니다. 과거에는 '금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가을에 펼쳐지는 억새밭을 비롯하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마라도는 2000년 7월에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내판 7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곳, 정동진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있는 바닷가라 하여 붙여진 정동진은 실제로 서울의 도봉산과 같은 위도에 해당됩니다.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은 드라마 '모래시계'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큰 모래시계가 세워져 있는데,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사를 합니다. 위쪽의 모래가 아래쪽으로 모두 떨어지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내판 8	정동진의 후예, 정서진과 정남진 인천의 정서진과 장흥의 정남진은 정동진에 착안하여 발굴된 관광지입니다. 정서진은 정동진과 대비되어 일몰과 함께 낭만, 그리움, 회상을 의미하고 해돋이와 반대되는 해넘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남진은 장흥의 지역 이미지 브랜드입니다. 정남진 전망대, 정남진 물 과학관, 정남진 천문과학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정남진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판 9	백두산 천지 물이 다다른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는 '땅끝마을'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섬들을 제외한 육지 부분의 마지막 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리적 위치의 관광자원화를 실현한 곳이기도 합니다. 땅끝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사재끝이라는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의 샘물은 백두산 천지 물이 스며들어 우리나라 산맥을 타고 도착한 것이라 합니다.
안내판 10	경도 0°, 구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 런던의 구 그리니치천문대는 경선의 기준이 되는 본초자오선이 있는 곳입니다. 본초자오선에는 벽돌이 일렬로 붙여있습니다. 현재 천문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본초자오선과 함께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내판 11	위도 0°,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에콰도르라는 국가명은 이 나라의 수도인 키토의 주변을 적도가 통과하는 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1736년 프랑스의 탐험대가 적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가장 꼭대기에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안내판 12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신비의 섬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한 섬나라인 피지는 경도 180° 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24시간(하루)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내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피지입니다.
안내판 13	일본의 정중앙, 니시와키시 1919년 한 교사가 교사연수회에서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국토정중앙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니시와키시에는 '일본 배꼽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이 주변 지역에는 '배꼽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꼽 공원에는 일본의 4극단을 의미하는 4개의 기둥과 천문대 등이 있습니다.
안내판 14	유럽 정중앙 변천사 유럽의 정중앙은 188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설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유럽의 정중앙은 독일,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안내판 15	지역의 정중앙, 베를린과 유타주 독일 베를린의 정중앙은 북위 52° 29' 38", 동경 13° 25' 26"입니다. 1990년 처음 고안되었고 1997년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유타주에도 정중앙이 있습니다. 위치는 북위 39° 32' 814", 서경 111° 27' 383"입니다.
안내판 16	지역의 정중앙, 베이징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지리적 중심점은 장산산의 꼭대기에 조성되어 있는 장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며, 자금성의 북쪽 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자금성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아름다운 왕실 느낌의 정원이 가꾸어져 있어서 방문객들의 여가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게 마라도는 독도처럼 우리나라 극지점이라는 특징을 관광자원으로 삼은 곳이야.”

“민국아, 이것 봐! 내가 가족들과 해돋이를 보러 갔던 정동진도 있어!”(표 2의 안내판 7) “대한아, 네가 말했던 모래시계 사진이 있네.” “아 맞다! 아까 내가 얘기 안했었나?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는 모래가 아래로 모두 떨어지려면 1년이 걸린댔어. 그래서 새해 행사로 매년 1월 1일 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하더라.” “새해에 보는 해돋이와 1년을 보내는 모래시계라니. 매력적이다! 나도 내년에는 새해를 맞이하러 정동진을 가봐야겠어.” “봐봐 애들아. 너희들도 가고 싶어 하는 정동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겠니? 광화문 동쪽 끝인 정동진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된 것을 보고 인천은 정서진, 장흥은 정남진을 관광지로 내세웠어.”

정서진과 정남진을 소개한 안내판 8에 이어 세 사람은 해남 땅끝마을 살펴보고 있다.

“애들아 앞에서 정동진과 정서진은 각각 해돋이와 해넘이 축제를 한다고 했지? 땅끝 마을인 해남에서는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에 해넘이, 해맞이를 함께 볼 수 있어.”(표 2의 안내판 9)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대한이가 말한다.

“선생님! 그런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위치를 주제로 한 관광지들이 있나요?” “물론이지! 선생님이 아까 올라오면서 수리적 위치에 대해 말해준 것 기억나니?”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민국이가 대답한다.

“네!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표시하는 것이 수리적 위치였죠?” “맞아. 경위도 좌표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라 경도, 위도와 관련된 관광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 여기 안내판에도 소개되어 있구나.”(표 2의 안내판 10).

구 그리니치 천문대 안내판에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신다.

“구 그리니치 천문대는 지금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곳에 새로운 그리니치 천문대가 세워져 있어. 188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에서 구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세계 공통의 본초자오선으로 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이곳이 경도 0°가 되었어.” “선생님! 여기 위도 0°도 있어요!”(표 2의 안내판 11) “대한이가 잘 찾았구나. 에콰도르라는 국가는 이름 자체가 적도라는 뜻이야. 수도인 키토가 적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키토에는 적도 기념비가 있

는데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키토의 꼭대기에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 “우와! 해가 떠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니!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이 뿐만이 아니야. 구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경도는 시간을 결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도 있어.”

앞에 놓인 안내판을 가리키며 대한이가 말한다.

“선생님! 피지와 하와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하하” “바로 그거야 대한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지에는 타베우니 섬이라는 곳이 있어. 안내판 12에 있는 것처럼 그 섬에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경계로 해서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어 있지.” “어제와 오늘이 나눠진다고요? 놀라운 섬이네요!” “더 재밌는 사실은, 피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와이가 있지. 피지가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태양을 마주한 것과 반대로 하와이는 21세기의 첫 태양을 가장 늦게 만났어.” “그럼 제가 내년 1월 1일에 피지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16살이 되는 것이고, 배를 타서 하와이로 건너가면 다시 15살이 되는 거예요?” “하하하. 대한아 너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겠구나.” “대한이도 참^^” “애들아, 지금까지 관광지로 유명한 위치들을 보았지? 이제 다른 나라의 지리적 중앙들이 나올 거야”

선생님 말씀에 대한이가 안내판 13 앞으로 다가가 설명을 읽고 있다.

“우와! 일본은 1919년에 국토정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빠른걸요?”

여러 안내판을 읽어 본 민국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국토정중앙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구나...” “민국아! 정중앙을 삼은 것이 지역이나 국가만이 아닌가봐. 유럽의 정중앙은 엄청 많대!” “선생님, 유럽의 정중앙은 왜 이렇게나 다양한가요?”(표 2의 안내판 14)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나라 국토정중앙을 찾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지?”

선생님의 질문에 민국이가 곧바로 대답한다.

“헌법 3조에 있는 국토의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의 국토 범위는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정중앙을 설정한 사람들마다 범위를 제각각으로 두었어. 그리고 지리적 중심뿐만 아니라 기하학 중심을 말하기도 하지.”

유럽 정중앙의 변천사를 본 대한이가 놀라며 말한다.

“헉! 유럽의 정중앙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 그중에서도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알려줄게. 리투아니아의 수

도 빌뉴스 북쪽에 있는 마을이 1989년 유럽대륙 국경선을 다시 설정하면서 유럽의 정중앙이라 알려지게 되었어. 몇 년 후인 1991년에 젊은 조각가인 긴타라스 카로 사스라는 사람이 이곳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조각공원 미술관을 열었어. 공원의 이름은 유럽공원이었지. 그 뒤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조각가들이 작품들을 기증해주던 것이 지금은 27개국에서 보내온 90점의 작품이나 된다고 해.” “유럽 정중앙은 굉장히 큰 관광지인가 봐요.” “그래.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 지리교과서 앞 뒤 표지에 유럽정중앙 사진을 수록해 놓고, 책 속에도 유럽과 함께 리투아니아의 국토정중앙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이라는 위치의 가치와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선생님! 민국아, 여기 보세요. 나라나 대륙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중앙을 찾아 놓은 곳들이 있어요!” (표 2의 안내판 15, 16) “정말 그렇네! 독일 베를린과 미국 유타주, 또 중국 베이징은 지역 정중앙을 찾아놓았어.” “애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중앙을 궁금해왔어. 여기 있는 사진들은 그 의문을 풀고자 직접 정중앙을 찾아 본 결과야.” “중앙을 찾아본 곳이 이렇게나 많다니... 민국아! 우리도 집에 돌아가면 동네 정중앙을 찾아볼까?” “좋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토정중앙 찾는 방법도 배웠잖아~ 한 번 우리 동네 정중앙도 찾아보자^^”

3. 대한민국의 하나 뿐인 국토정중앙

1)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양구가 우리나라의 정중앙이라니, 믿을 수 없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중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 인가요? 중앙답이 멋지게 들어서 있는 충주,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연천. 혼란스러우시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주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증원정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신라의 중앙이라는 뜻이죠. 한반도가 처음 통일된 국가가 통일신라이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일치하는 국토의 범위는 아니랍니다. 통일신라는 676년 ~ 935년 사이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려 천 년이 넘는 과거 일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경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토를 고려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토정중앙 아닐까요?

통일한국의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에는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경위도 좌표를 평면 직각 좌표로 계산하기 위한 가상의 원점이지요. 우리나라의 원점은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동해원점이 있는데, 연천이 중부원점에 해당합니다. 중부원점의 경도는 127°, 위도는 38°입니다. 즉 경기도 연천은 지리적 위치로서의 중심이 아닌 단지 측량 기준점이 있는 곳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팔칠케이)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충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지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한국 땅)

- 독도는 우리땅, 30년(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을 개사) -

가사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갑자기 웬 독도냐고요? 국토정중앙 양구 이야기에서 독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독도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 더, 국토정중앙도 알려주세요. 독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거든요. 양구를 국토정중앙이라 칭해야만 우리의 땅 독도도 진정한 우리 영토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찾게 된 이야기는 헌법에 따라 국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부속도서에 독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동서남북 각 끝 지점을 지나는 네 개의 선을 긋고 다시 그 중앙에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을 그어 교차하면 국토정중앙 양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부터 시작된 국토정중앙. 양구

가 국토정중앙이 아니라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그리운 금강산이여

누구의 주재권이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 이천 봉 맑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 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 만 년 아름다운 산 떠나간 지 얼마나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비로봉 그 봉우리 짓밟힌 자리
흰 구름 술바람도 무심히 가나
발 아래 산해 만 리 보이지 마라
우리 다 땀한 원한 풀릴 때까지
수수 만 년 아름다운 산 떠나간 지 얼마나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 한상익, 그리운 금강산 -

우리 민족의 영산, 금강산. 선조들이 유람하던 곳. 우리 땅이 하나였던 지난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적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 곳.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 일본인은 금강산이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의 가치를 알고는 금강산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지요. 금강산 주변을 크게 도는 철도도 놓으려고 하였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발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금강산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가보고자 하는 곳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했던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한반도 위에서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꿈꾸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금강산을 많이 찾아서 인지 그만큼 금강산과 관련된 전설이 다양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서울 등지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여행 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경원선을 타고 철원에 도착하여 금강산 전기철도로 갈아타는 것 또는 양구를 지나는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양구 두타면에 가시면 금강산 가는 길을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인 양구는 그 지명도 금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양구에서 터를 일궈온 어르신들에 의하면 금강산을 예전에는 계양산(桂楊山)이라고 불렀는데, 이 계양산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에서 양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속설로는 조선시대 선조 25년(1592년)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첫 고을인 양구를 지나다가 주위에 버드나무가 흐드러진 것을 보고 양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구에서부터 금강산 유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구에서 금강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비단 사 람뿐만이 아닙니다. 금강산의 뿌리를 둔 양구의 명산인 봉화산은 금강산의 기운이 오르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기운, 그리고 명산인 금강산의 기운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바로 봉화산에 위치한 국토정중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지리인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금강산에서 봉화산으로 이어진 능선을 중심으로 좌청룡으로는 한강기맥(남한강과 북한강 사이의 산줄기), 우백호로는 한북정맥이 감싸는 모습이며, 그 바깥으로 한남 금북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이 외청룡·외백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주작의 역할은 두타산이, 북현무는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금강산 줄기가 될 것입니다.

이성계 발원문 불사리장엄구가 금강산에서 발견되고, 이를 양구 백토를 원료로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지기(地氣)가 강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의 기운이 봉화산에 이르기까지 방산지역에 그 기운이 전달된 것으로 보아 그 주변에도 영향이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금강산을 가려면 양구에서 잠시나마 머물러 힘을 모아 야 한다. 특히 국토정중앙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국토정중앙의 기운을 아직 제대로 알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중흥의 에너지가 솟고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르는 곳인 국토정중앙에서 기운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금강산으로 나들이를 갈 때, 양구의 국토정중앙에서 금강산의 오르내리는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동력으로 하여 다시 금강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IV. 결론

21세기를 일컬어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공간은 부드럽고, 다양하며,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

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 의미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그 이유는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정중앙은 우리들의 생활과 역사가 담겨있는 국토의 절대적 상징성 뿐 아니라 독도 문제와도 관련 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중앙은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파편적 자원에 머물러 있었다. 유럽의 수많은 정중앙들도 그들의 수리적 위치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보다는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관광 자원화를 노력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두고 있다. 반면에 리투아니아의 경우는 수리적 위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일상 공간에 대한 미학화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상 공간의 미학화는 곧 지역 주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미적 공간은 다시 외부로 확산되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지리적 위치 자원과 지역 정체성 그리고 스토리의 결합이 상징적 의미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토정중앙이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리적 위치자원을 양구라는 장소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지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이를 연계해 가면서 지오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다.

국토정중앙의 지오 스토리텔링의 구성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배꼽나라 긴급회의’라는 스토리를 통해 양구와 우리나라의 4극을 알리고 국토정중앙이 설정된 이유 그리고 지리적 위치 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하였다. 둘째, 국토정중앙을 ‘관찰의 성지’라는 테마 공간으로 스토리텔링 작업을 시도하였다. 셋째, 국토정중앙과 독도 그리고 금강산을 연계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 영토 교육과 통일 교육의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 스토리는 방문객이 국토정중앙 휘모리탐을 방문하는 동선에 맞추어 구성했기 때문에 안내판이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들 스토리는 단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스토리텔링 연구는 대부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이것을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엮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의 스토리로 창작한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원에 대한 스토리를 창작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모든 스토리텔링의 주제와 세부 콘텐츠는 방문객들의 방문 의도와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하며, 스토리텔링 매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마케팅과 홍보 강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만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지오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텔러(teller)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차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권동희, 2012, “지형경관자원의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화강암 지형과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3), 151-164.
- 기근도, 2013, “용유동 지형경관에 대한 스토리텔링 내용 구성,” 한국지형학회지, 20(4), 133-145.
- 김영순, 2010,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 and 공간 스토리텔링: 검단과 춘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9, 35-59.
- 김장수·장동호·김성훈·조자영, 2014, “상원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지형경관자원 발굴과 가치평가,” 한국지리학회지, 3(1), 39-51.
- 김정하, 2009, ““스토리 시티 부산”으로 가는 길 - 부산형 스토리텔링 구축 방안,” 부산발전포럼, 136, 18-27.
- 김창환, 2002, “국토정중앙 확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12-114.
- 김창환, 2008,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서의 국토정중앙의 가치와 활용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453-465.
- 김창환, 2010, “빌뉴스 유럽정중앙을 통해 본 양구 국토정중앙의 명소화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 127-138.
- 김창환, 2011, “강원도 DMZ 지리공원(Geopark)의 지오 사이트 선정과 스토리텔링,”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1), 117-134.
- 김창환, 20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177-190.
- 김창환, 2016, “삼수령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한국지리학회지, 5(1), 13-22.
- 김창환·정해용, 2014, “교육과 학습의 장(場)으로서 지질공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3(2), 89-96.
- 김태영·조혜경, 2008,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 김훈철, 2004, 「브랜드스토리텔링」, 서울: 멘토르.
- 류수열·유지은·이수라·이용욱·장미영·주경미, 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 류주현, 2013,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지역 개발 -돈기호테의 길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41-152.
- 반기성, 2010, 「(날씨가 바꾼) 어메이징 세계사」, 서울: 플래닛 미디어.
- 반기성, 2012, 「(날씨가 바꾼) 서프라이징 세계사: 날씨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지배한다」, 서울: 플래닛 미디어.
- 반정화·민현석, 2009,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원봉 역, 2011, 「주역계사 강의」, 서울: 부키.
- 오정준, 2010, “수리적 위치 자원의 관광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115-126.
- 옥한석, 2012, “스토리텔링에 입각한 남원 음악도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잘츠부르크와의 비교,”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4), 43-52.
- 우성호·박석수, 2010,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공공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태원 거리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9(1), 247-250.
- 유영준·이성각, 2016,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울산 태화강 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71-83.
- 이경은, 200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사례 분석과 그 함의,” 사회과학연구, 33(2), 309-336.
- 이두현, 2014, “스토리텔링 체험활동 기법을 적용한 도시 공간 개발 전략,”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3), 87-104.
- 이상기 역, 2004, 「날씨가 역사를 만든다」, 서울: 황소자리.
- 이승주·이현숙·서종철, 2012, “생태관광 정보 표준화를 위한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유형분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1-16.
- 이인선, 2013, “특화가로 공간환경디자인의 지역성 표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11, “서울시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장소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숙·김근중, 2011,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요소 분석: 2010 세계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4), 87-95.
- 전영권, 2008, “대구 문화생태환경 복원과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189-198.
- 전영권, 2009, “지오투어리즘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문화지형의 발굴과 스토리텔링 구성 -만어사와 반야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07-118.
- 전영권, 2010a, “대구 신천과 금호강 일대의 문화지형 발굴과 스토리텔링 구성,” 한국지형학회지, 17(3), 17-30.
- 전영권, 2010b,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53-69.
- 조대현, 2014, “GIS 기반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인구조리 수업 모형 개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2), 81-96.
- 최상희, 2011, “사회과 신문 활용 수업에서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7(1), 291-312.
- 최은미, 2010,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한 상상+이야기의 감성적 공간 연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호, 2008,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장소마케팅,” 대한관광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35-42.
-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최혜실·조미영·정윤미·안승범, 2007,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서울: 다할미디어.
- Frey, M., Schäfer, K., Büchel, G., and Patzak M., 2006, Geoparks-a regional, European and global policy, in Dowling, R.K. and Newssome, D. eds., *Geotourism*, Oxford: Elsevier, 158-179.
- Stueve, A.M., Cook, S.D., and Drew, D., 2002, *The*

Geotourism Study : Phase 1 Executive Summary,
National Geographic Traveller, Washington D.C.: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ntent.com>

Correspondence : Hae Yong Jeong, 24341,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Korea Geopia Research Institute (Email: wjdgofyd@hanmail.net)

교신 : 정해용,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사)
한국지오피아연구원 (이메일: wjdgofyd@hanmail.net)

투 고 일: 2017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6일

투고확정일: 2017년 8월 19일

